

2015년 가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하나님의 건축의 일

메시지 5

주님과 함께 장막 교회 생활에서 성전 교회 생활로 전진함

성경: 겔 43:10-12, 요 14:23, 빌 3:12-14, 사 66:1-2, 57:15, 엠 2:21-22

- I.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의미(‘ 품에 안다’ 혹은 ‘ 달라붙다’)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품에 안고 우리를 얻으셔서 우리가 그분께 달라붙고 그분을 얻도록 하신다는 것을 계시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얻으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얻음으로써 그분이 우리 안으로 건축되시고 우리는 그분 안으로 건축됨으로써 단체적인 하나님-사람, 새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자 집인 교회,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가 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다 — 합 1:1, 2:2, 4 하, 빌 3:12-14, 비교 창 41:51-52.
- II. 하나님의 백성의 일과 행동과 인격은 반드시 하나님의 설계와 모형에 따른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부합해야 한다 — 겔 43:10-12.
- A. 하나님의 건축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건축해 넣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게 된 성도들에 의해, 곧 다른 이들의 변화를 위해 삼일 하나님의 속성들로 그들을 온전케 하시는 변화시키시는 영과 동역하는 이들에 의해 교회 생활 안에서 온전하게 될 필요가 있다 — 고전 3:9, 12, 16-17, 아 1:10-11, 엠 4:11-12, 요 14:23.
- B. 하나님의 집은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영으로 충만된 사람들, 그 영에 의해 살고, 그 영에 의해 행하고, 그 영에 의해 섬기고, 영에 따라 행하고, 우리의 영 안에서 경배하고, 우리의 영 안에서 섬기며, 그 영을 공급하기 위해 그 영을 넘쳐 흐르게 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 벰전 2:5, 엠 5:18, 갈 5:16, 25, 빌 3:3, 롬 8:4, 요 4:24, 롬 1:9, 요 7:37-39, 고후 3:6, 요 6:63, 사 66:1-2, 57:15.
- C. 하나님의 집은 그분의 마음의 갈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그분의 친구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반드시 그분의 동반자들, 곧 그분과 가장 개인적이고 친밀할 접촉을 가짐으로써 땅 위에서 그분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그분에 의해 사용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 요 2:17-22, 약 2:23, 출 33:11.
- III. 성막과 성전은 교회의 두 방면을 예표한다.
- A. 열왕기상 8 장 1 절부터 11 절은 성막이 성전과 합해진 것을 보여준다. 예표론에서 성막은 하나님의 건축물에 대한 광야에서 움직이는 이동식 전조였던 반면에 성전은 그 완결이었다.
- B. 성막의 확대인 성전은 교회의 강화시킴과 안정시킴을 상징하고 성전의 가구의 새롭게 함과 확대는 그리스도에 대한 성도들의 체험의 새롭게 함과 확대를 상징한다.
1. 성전과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의 치수는 성막의 두 배 였다. 그 뿐 아니라 언약궤를 제외하면 가구들과 집기들의 크기와 숫자는 훨씬 더 확대되었다 — 왕상 6:2, 20, 대하 4:1-8, 비교 출 26:3, 16, 18, 22-24, 33.
 2. 이것은 비록 (언약궤로 상징되신) 그리스도 자신은 확대되실 수 없지만, 성전과 그 가구들과 집기들로 상징된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들에 대한 우리의 체험은 훨씬 더 증가되고 확대되어 그분의 확대된 표현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 엠 3:8, 14-19, 빌 3:7-14.
- C. 성막은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혹은 지방들에 있는 그분의 교회를 예표하는 반면에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인 교회를 상징한다. 지방 교회들은 하나님의 경륜의 영광스러운 목표인 몸의 실재 안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한 보배로운 절차이다 — 엠 1:22-23, 비교 계 21:10-11.

- D. 유일한 사역은 하나님의 유일한 증거를 위하여 하나님의 유일한 증거, 곧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는 지방 교회들 안에서 실현된다 — 출 25:22, 38:21, 계 1:2, 9, 비교 엡 4:4, 요 16:13.
- E. 고린도전서 12 장에서 설명된 몸은 지방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할 증거이다. 그것은 몸의 증거이며 오늘날 지방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표현하는 증거가 되어야 한다 — 고전 12:14-18, 21.
- F. 교회는 하나의 증거를 위해 존재한다. 우리가 ‘지방 교회’를 언급할 때 우리의 강조점은 ‘지방’에 있지 않고 교회에 있다. 교회들이 소유한 생명은 하나의 생명이다 — 요 17:11, 21, 23, 계 1:10-12.
- G.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의 증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와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이 기능을 발휘함을 가진 하나님의 최종적인 회복이다 — 엡 1:17, 3:16-21, 4:1-6, 16.

IV. 우리 속에 계시는 주님은 혼의 광야에 있는 성막 교회 생활로부터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좋은 땅의 실재이신 그리스도를 가진 성전 교회 생활로 전진하기를 열망하신다. 성전 교회 생활의 실재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언약계와 성막의 역사를 보아야 한다 — 히 6:1 상, 수 3:14-17, 신 8:7-9, 엡 2:21-22, 골 1:12, 2:6-7.

- A. 언약계는 땅 위에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하여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시기 위해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삼일 하나님의 임재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 마 1:23.
- B. 언약계의 역사의 첫번째 단계에서 언약계는 성막의 중심과 내용이었으며 교회의 중심과 내용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언약계가 성막의 이상에서 첫번째로 언급된 항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서 으뜸의 위치를 차지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생명의 성장으로 ‘그분 안으로’ 들어가며 그분 ‘으로부터’ 우리가 생명 안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가리킨다 — 출 25:10, 40:21, 골 1:17 하, 18 하, 엡 4:15-16.
- C. 이스라엘의 하락 때문에 언약계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포획되었고 성막과 분리되어 성막을 실재가 없는 빈 그릇이 되게 했다 — 삼상 4:11-6:1.
 1. 이스라엘의 하락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어리석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들을 신뢰했다 — 롬 2:28-29.
 2. 그들의 상황에서 그들은 회개하고, 철저히 자백하며, 우상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도록 원하셨던 것처럼 그분께 구해야 했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갈망이나 그분의 영원한 경륜에 대한 마음을 갖지 않고 언약계의 움직임을 통하여 그들이 체험했던 과거의 승리에 기초하여 미신적으로 언약계를 신뢰했다.
 3. 언약계를 가지고 나온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었다. 언약계의 움직임은 땅 위에서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의 그림이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싸우는 동안에 하나님은 움직이실 의도가 없으셨다.
 4.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생각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다. 그들이 언약계를 가지고 나온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강탈했고 심지어 그들의 안전과 평안과 안식과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강제적으로 그들과 함께 가시도록 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어떤 고려도 없이 우리의 번영을 위해 기도한다면 원칙적으로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강탈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에 따라 그분의 경륜을 위해 기도하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언제든지 사람의 필요가 하나님의 증거를 대체할 때 하락이 있다 — 왕상 8:48.
 5. 그들은 하락 가운데서 극도로 하나님을 상하게 했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셨다. 결국 언약계가 이스라엘을 구하지 않았고 언약계 자체를 포획당했다. ‘언약계가 없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며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영광이 없음’을 의미하는 ‘이가봇’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삼상 4:21-22, 11 상, 13 상, 비교 골 1:27-29.
- V. 이스라엘의 하락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일으키셔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복제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익과 유익만을 관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일으키신 것은 다윗을 얻으시고 다윗을 통해 그분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솔로몬을 얻으시기 위한 것이었다 — 삼상 1:27-28, 2:30, 3:1-4, 9-10.

- A. 사무엘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헌신된 나실인, 곧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는 이를 대체하기 위한 자원자였다 — 삼상 1:11, 28 상.
- B. 사무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행동했던 신실한 제사장이었고 심지어 땅 위에서 신성한 통치를 위해 왕들을 임명하고 세웠다 — 삼상 2:35.
- C. 사무엘은 자신에 의해 임명된 제사장인 왕들을 보조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신언자였고 낡고 진부한 제사장 체계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대체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다 — 삼상 3:20.
- D. 사무엘은 하나님의 통치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판관이었고 낡은 제사장 체계가 백성을 판단하는 것을 대체했다 — 삼상 7:15-17.
- E.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민, 곧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길 안에서 지켜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며 민족들의 우상들에 빠지지 않고 에벤테셀이신 하나님을 누려 하나님의 선민에 관한 그분의 뜻 가운데 있는 갈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다 — 삼상 12:23-24, 7:3-14, 8:6, 15:11 하.

VI. 언약궤와 성막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에 대한 예시이다.

- A. 교회의 역사의 첫번째 단계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표현이었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내용이었다. 이것이 정상적인 상태이다 — 출 40:21.
- B. 두번째 단계에서 교회는 하락했고 그리스도의 실재와 임재를 상실했다. 교회는 내적인 실재가 없는 빈 그릇이 되었다 — 계 3:20.
- C. 언약궤는 팔레스타인으로부터 회복되었고 먼저 기랴-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졌고 그곳에 20 년 동안 머물다가(삼상 6:2—7:2),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달을 머물렀다(삼하 6:10-12). 2 세기를 시작으로 다수의 ‘ 오벳에돔들 ’ 이 일컬어졌다. 그들은 주님의 임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표현인 합당한 교회 생활은 갖지 못했다.
- D. 다윗은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자신의 성 안에, 곧 예루살렘에서 가장 정선된 곳인 시온산에 있는 장막 안으로 옮겼다(삼하 6:12-19, 대상 15:1—16:1), 이것은 개선된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언약궤는 합당하지 않은 장소에 있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성막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상황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권익을 관심하면서도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선택에 따라 교회 생활을 실행하려고 했던 여러 믿는 이들을 계시한다. 이러한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를 가졌지만 교회 생활에 대한 합당하지 않은 실행(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장막)과 함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었다 — 비교 왕상 3:3-15, 대하 1:10.
- E.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성전 건축을 마쳤을 때, 언약궤는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안으로 옮겨졌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서 주님은 그분의 확대되고 확장된 표현을 위하여 지성소인 우리의 영 안에서의 단체적인 생활을 가진 성전 교회 생활인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일하신다 — 왕상 8:11, 48, 엠 2:21-22.